

지역 소식통

부강영농조합법인,부안군에

유럽상추 180박스 나눔

부강영농조합법인(ULows상추 팜, 대표 김택균)은 24일 부안군에 유럽상추 180박스(총 720kg)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유럽상추는 신선도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안군 노인요양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부강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농업 발전과 더불어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김택균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강영농조합법인은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선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5월 한 달간 관광

택시 50% 할인 이벤트

부안군은 5월 가정의 달과 여행가는 달을 맞아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고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요금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부안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광택시를 총 요금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코스별 요금은 3시간 코스 7만원~8만 5000원, 5시간 코스 11만원~6만 5000원, 6시간 코스 13만원~6만 5000원으로 대폭 할인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보며 부안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개최됨에 따라 할인기간 중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관광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축제장 이동은 물론 체석강, 내소사 등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일정 구성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이학수 정읍시장, 지원금 지급 첫날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현장점검 나서

정읍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현장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인구가 많은 수성동과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신청과 접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신청서 작성 공간과 대기 동선, 안내 인력 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살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한 단력적인 인력 운영을 주문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전담 안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했다.

시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마을별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방문 접수와 맞춤형 안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급 개시 전 사전 현장 점검으로 신청과 접수 준비 상황을 파악했



으며 지급 첫날까지 연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왔다.

이학수 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민생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을 적극 확대해 단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안내와 민원 대응을 위해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을 운영 중이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화상담실 ☎ 063-539-8101~810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저메탄 사료 산업화 '눈 앞'

미생물 기반 탄소저감 사료 소재 개발 성공... 메탄 14% 저감 입증

정읍시가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한우의 메탄 발생을 14% 이상 저감하는 사료 소재 MGOsym 개발에 성공하며 탄소 저감 기반 미래 산업 전환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개발된 MGOsym은 안전성을 인정받은(GRAS) 모노라우린, 마늘, 오레가노를 기반으로 한 천연물 복합체로, 퇴배감질을 하는 반추기축의 위(반추위) 내 메탄 생성 경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연구진은 최근 4년 동안 100여 종 이상의 미생물, 천연물, 효소류와 화합물 후보 물질을 분석해 핵심 성분을 선별하고 배합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MGOsym을 개발했다.

특히 반추위액 모의실험에서 최대 61%의 메탄 저감 효과를 보인 이 연

구 성과는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Frontiers in Microbiology)에 게재됐다. 국가 인증 기관인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한 한우 급여 시험에서도 일반 사료 대비 평균 14% 이상의 메탄 배출 감소 효과가 확인돼 국가 인증 기준인 10%를 상회했다.

현재 참여 기업인 (주)정농바이오는 저메탄 사료에 대한 국가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과하면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저메탄 사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연간 약 52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농가 실증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농가 실증과 기술 사업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연결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기술 이전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연구 개발 기반 산업화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운곡습지 생태길 힐링걷기' 숲속 영상 공모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주제... 내달 25일까지 접수

고창군이 랏사르 습지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쉽고 여유를 선사하기 위해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힐링걷기' 숲속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운곡습지에서의 하루'를 주제로 열린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운곡습지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걷고, 쉬고, 즐기는 모습을 담은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간이며, 운곡습지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고창 운곡습지에서 걷는 모습을 자유롭게 촬영해 60초 이

내의 숲속 영상으로 제작한 뒤, 필수 해시태그(#고창 #봄날의운곡습지 #아무것도하지않아도괜찮아 등)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해당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6월 10일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작품(100만 원) △최우수상 2작품(각 50만 원) △우수상 5작품(각 20만 원) 등 총 8개 작품을 선정하며, 상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정신 무장기포서 되새겨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성료... 진격로 걷기·비빔밥 퍼포먼스등 큰 호응

고창군이 지난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 주관으로,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기관사회단체장, 동학 관련 단체,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

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녹두대상 시상, 무장포고문 낭독,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동학 비빔밥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1894년 무장기포의 합성과 정신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제19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가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진격로 걷기'에서는 참석자들이 무장기포지에서 구 신왕초까지 약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몸소 체험했다. 이어 열린 '동학 비빔밥 퍼포먼스'에는 지역 특산물을 함께 나누고 섞으며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26일에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한 '진격로 걷기 챌린지'가 진행되어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확산과 생활 속 참여형 프로젝트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창군은 '무장기포 기념주간(4월 25일~5월 2일)'으로 운영하며, 학술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신규 농업인 55명 배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4일 2026년 상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마무리하고 5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는 총 62명이 참여해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농업기술과 농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돕고자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작목 선택부터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농업기계 안전 사용, 농업 경영까지 영농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적용성을 높인 맞춤형 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려주니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